

자료해석영역

1. 다음 <표>는 갑국 금융거래정보조회 통보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갑국 금융거래정보조회 통보 현황
(단위: 건)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실제 통보건수	49,544	67,342	106,695	80,548	90,876
모바일 통보건수	211	4,544	8,528	7,086	8,123
기타 통보건수	49,333	62,798	98,167	73,462	82,753

< 보 기 >

- ㄱ. 2022~2025년 동안 갑국 금융거래정보조회 실제 통보건수와 모바일 통보건수의 전년 대비 증감방향은 동일하다.
- ㄴ. 2023년 갑국 금융거래정보조회 실제 통보건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모바일 통보건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보다 작다.
- ㄷ. 2022~2025년 동안 갑국 금융거래정보조회 실제 통보건수에서 모바일 통보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2. 다음 <표>는 2020년 사회연대경제 5대부문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2020년 사회연대경제 5대부문 현황
(단위: 개, 명, 억원)

구분	기업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회적기업	2,777	55,407	52,940
협동조합	19,492	47,925	22,560
마을기업	1,652	20,062	1,928
자활기업	1,062	15,961	3,074
소셜벤처	1,509	24,294	34,103

- ※ 1) 사회연대경제는 제시된 5대부문 외에는 없음
- 2) 평균 고용인원= $\frac{\text{종사자수}}{\text{기업수}}$
- 3) 평균 매출액= $\frac{\text{매출액}}{\text{기업수}}$

< 보 기 >

- ㄱ. 2020년 사회연대경제 5대부문 중 평균 고용인원이 가장 적은 부문은 협동조합이다.
- ㄴ. 2020년 사회연대경제 5대부문 중 평균 매출액이 가장 큰 부문은 소셜벤처이다.
- ㄷ. 2020년 사회연대경제 전체 기업수에서 사회적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미만이다.
- ㄹ. 2020년 사회연대경제 5대부문 매출액의 합은 10조 미만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ㄱ, ㄴ,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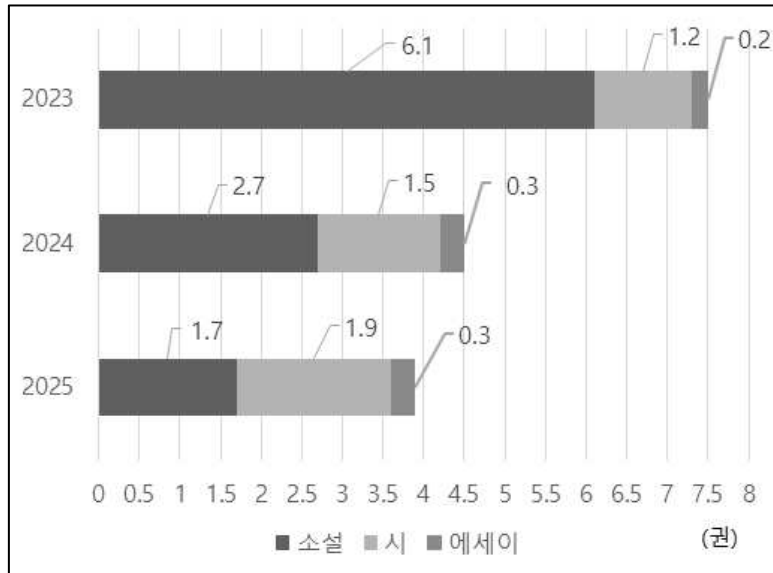
3. 다음 <보고서>는 2025년 갑국의 독서실태조사에 대한 자료이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지 않은 자료는?

< 보고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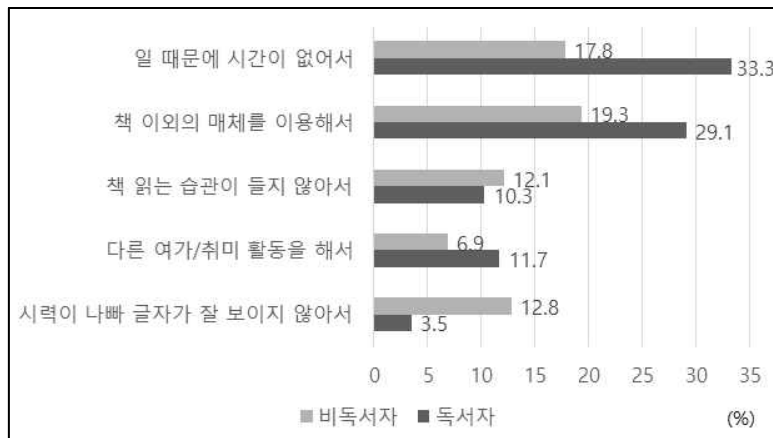
2025년 갑국의 독서실태를 조사한 결과, 성인 독서율은 43.1%로 전년 대비 4.4%p 하락하는 등 최근 4년간 성인 독서율이 하락하였다. 2025년 갑국 성인은 고연령대일수록 독서율이 낮게 나타났고,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전년 대비 독서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 살펴보면, 성인의 종이책 독서율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전자책 독서율은 소폭 상승하였다. 성인의 독서 장애요인은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책 이외의 매체를 이용해서’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갑국 학생의 독서율은 95.8%로, 전년 대비 4.4%p 상승하였다. 학생 독서율의 증가 이유 중의 하나로 학교의 독서 지도율 확대를 들 수 있다. 실제 학교의 독서 지도율을 살펴보면 모든 학교급에서 2024년 대비 2025년 독서 지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 현장에서의 독서 지도 활동이 학생 독서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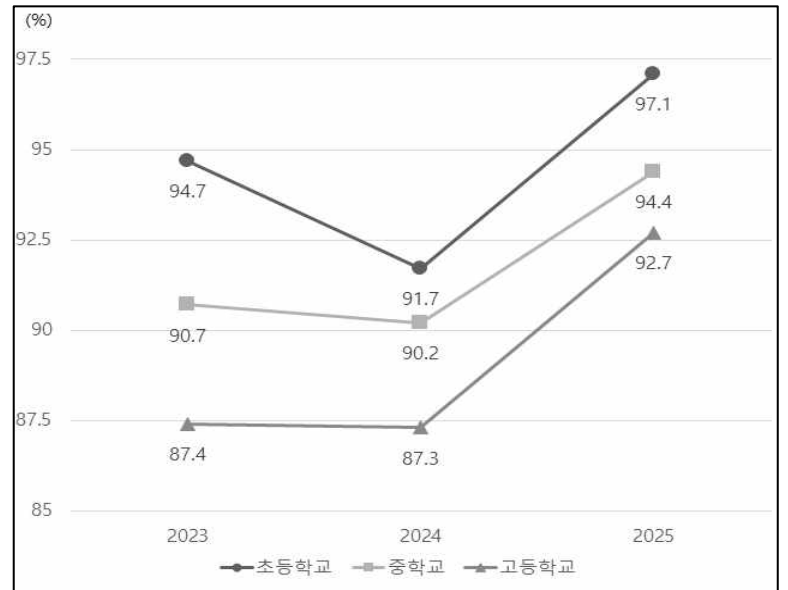
① 2023~2025년 갑국 성인의 장르별 평균 독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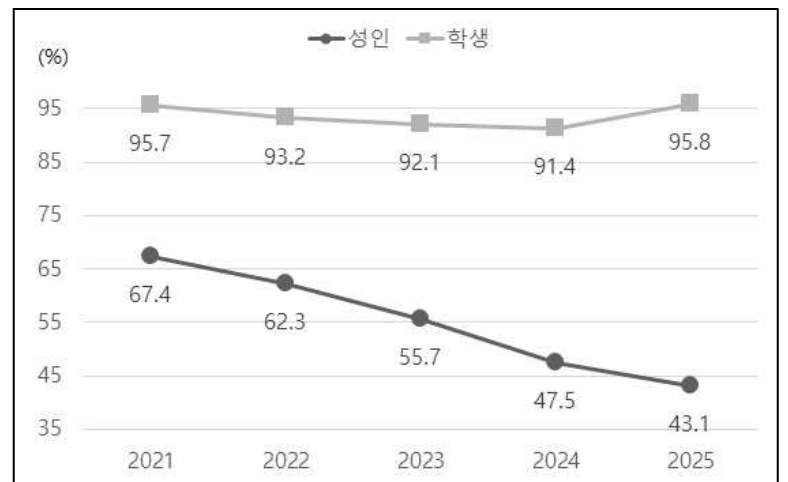
② 2025년 갑국 성인의 독서 장애요인 주요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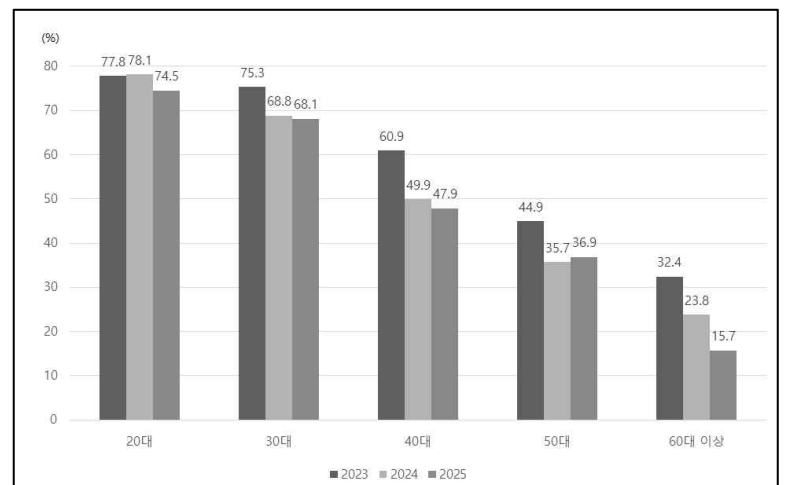
③ 2023~2025년 갑국 학교급별 독서 지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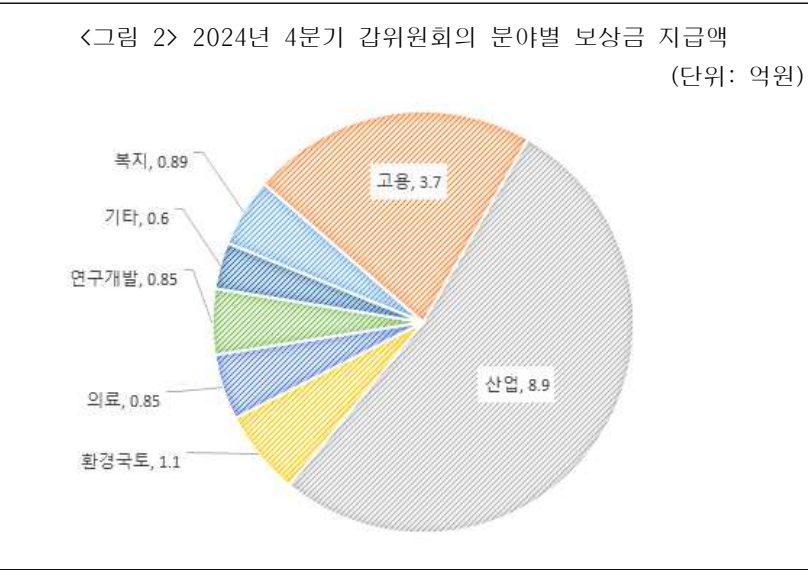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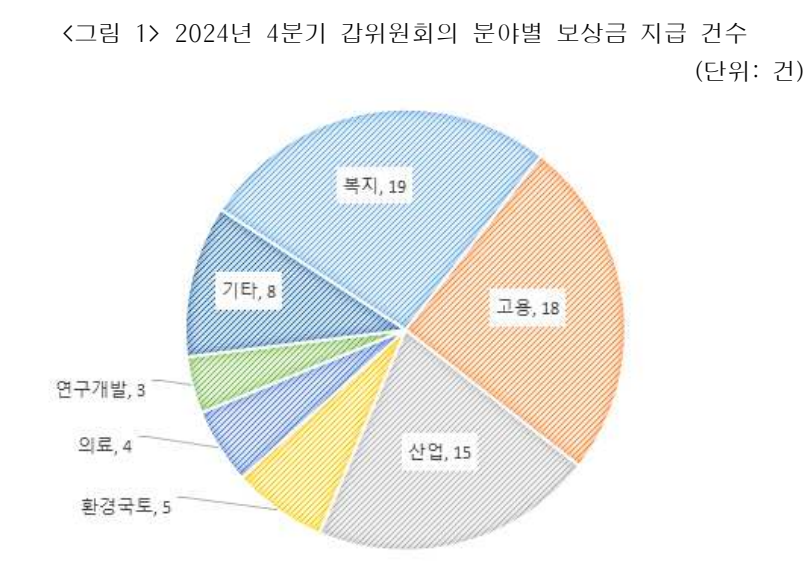
④ 2021~2025년 갑국 성인 및 학생의 독서율



⑤ 2023~2025년 갑국 성인의 연령별 독서율



4. 다음 <그림 1>과 <그림 2>는 2024년 4분기 갑위원회회의 분야별 보상금 지급 건수 및 지급액에 대한 자료이다. 다음 <그림 1>과 <그림 2>를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2024년 4분기 갑위원회회의 보상금 지급 건수와 지급액 모두 하위 4개 분야는 동일하다.
- ㄴ. 2024년 4분기 갑위원회 전체 보상금 지급 1건당 보상금 지급액보다 분야별 보상금 지급 1건당 보상금 지급액이 큰 분야는 기타를 제외하고 3개이다.
- ㄷ. 2024년 4분기 갑위원회 보상금 지급 건수에 보상금 지급 건수가 4건인 ‘사범’ 분야가 추가된다면, 2024년 4분기 갑위원회회의 전체 보상금 지급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인 분야는 2개가 된다.

- ① ㄴ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ㄴ, ㄷ

5. 다음 <표>는 2023년과 2024년 원천분 소득세의 세목별 소득세 수입 전망에 대한 자료이다. 세목 A~E가 각각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사업소득세,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중 어느 하나일 때, <표>와 <정보>를 근거로 A와 D에 해당하는 세목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표> 2023년과 2024년 원천분 소득세의 세목별 소득세 수입 전망
(단위: 조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정책처 전망치	예산정책처 전망치	예산안 전망치
계	75.6	81.2	80.3
근로소득세	58.6	62.7	62.1
A	4.4	4.6	4.8
B	0.5	0.6	0.7
C	1.2	1.3	1.4
D	3.9	3.8	3.9
E	4.5	5.5	4.9
기타소득세	2.5	2.8	2.7

※ 원천분 소득세 세목은 근로소득세,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사업소득세,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기타소득세 7가지로만 구성됨

- 세목 A~E 중 2024년 예산정책처 전망치의 전년 대비 증감 방향과 2024년 예산안 전망치 대비 2024년 예산정책처 전망치의 증감 방향이 동일한 세목은 배당소득세, 이자소득세이다.
- 세목 A~E 중 2024년 원천분 소득세의 세목별 소득세 수입에 대한 예산정책처 전망치의 전년 대비 증감률이 근로소득세보다 큰 세목은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이자소득세이다.
- 사업소득세 수입에 대한 2024년 예산정책처 전망치는 퇴직소득세의 3배 이상이다.

- | | A | D |
|---|-------|-------|
| ① | 사업소득세 | 배당소득세 |
| ② | 사업소득세 | 퇴직소득세 |
| ③ | 이자소득세 | 배당소득세 |
| ④ | 이자소득세 | 연금소득세 |
| ⑤ | 퇴직소득세 | 배당소득세 |

6. 다음 <표 1>, <표 2>는 아시아 주요국 연도별 경상수지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아시아 주요국 연도별 경상수지
(단위: 십억달러)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대한민국	75.9	85.2	25.8	32.8	99.0	89.3
중국	248.8	352.9	443.4	263.4	423.9	640.8
인도네시아	-4.4	3.5	13.2	-2.0	-8.7	-15.2
일본	149.9	196.2	89.9	155.9	193.7	166.9
대만	97.6	116.9	101.5	105.8	112.6	122.3

<표 2> 아시아 주요국 연도별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
(단위: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대한민국	4.4	4.4	1.4	1.8	5.3	4.8
중국	1.7	1.9	2.4	1.4	2.3	3.3
인도네시아	-0.4	0.3	1.0	-0.2	-0.6	-1.1
일본	3.0	3.9	2.1	3.7	4.8	3.9
대만	14.4	15.0	13.3	14.0	14.1	13.8

< 보 기 >

- ㄱ. 2021~2025년 동안 중국의 경상수지는 매년 상승하였다.
ㄴ. 2022년 중국의 GDP는 인도네시아의 GDP의 10배 이상이다.
ㄷ. 2023~2025년 동안 일본의 GDP는 매년 감소하였다.
ㄹ. 2025년 대만의 GDP는 8,000억달러 이상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다음 <표>는 갑국 주민세 과세 대상 법인 A~E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표>와 <정보>를 근거로 판단할 때, 2025년 12월 31일 가장 많은 주민세를 납부할 법인은?

<표> 갑국 주민세 과세 대상 법인 A~E 현황
(단위: 백만원, m², 명, 백만원)

구분	자본금	전체 연면적	종업원 수	급여총액	비고
A	4,200	800	10	200	-
B	3,500	400	50	600	-
C	8,600	600	35	500	-
D	2,000	300	60	800	-
E	6,500	400	48	500	오염물질 배출

※ 과세 대상 법인 현황 및 급여총액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임

< 정 보 >

- 갑국의 법인에 대한 주민세는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의 합이고, 2025년 12월 갑국의 법인에 대한 주민세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 주민세 사업소분 계산식
=기본세금+(법인별 전체 연면적×전체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주민세 종업원분 계산식
=법인별 급여총액×급여총액에 대한 세율

- 주민세 사업소분 중 기본세금

법인별 자본금 규모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
기본세금	5만원	10만원	20만원

- 주민세 사업소분 중 전체 연면적에 대한 세율

법인별 연면적	330m ² 이하	330m ² 초과
전체 연면적에 대한 세율	-	m ² 당 250원

※ 단, 오염물질 배출 시 전체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m²당 500원으로 계산함

- 주민세 종업원분 급여총액에 대한 세율

법인별 종업원 평균 급여액	종업원 1인당 평균 급여액 1천만원 이하	종업원 1인당 평균 급여액 1천만원 초과
급여총액에 대한 세율	-	0.1%

※ 종업원 1인당 평균 급여액= $\frac{\text{급여총액}}{\text{종업원 수}}$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8. 다음 <표>는 갑국 박사의 박사학위 취득국가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갑국 박사의 박사학위 취득국가 현황
(단위: 명, %)

구분		박사학위 취득국가 박사수	박사학위 취득국가				
			미국	일본	독일	중국	기타
박사 전체		51,391	()	()	()	()	()
성 별	남성	38,283	62.2	13.6	7.2	4.1	12.9
	여성	13,108	59.6	8.6	10.2	6.2	15.4
전 공	자연과학	6,653	69.8	10.2	6.1	2.5	11.4
	공학	11,091	65.1	22.8	2.4	0.5	9.2
	정보통신기술	1,686	79.1	7.3	6.5	-	7.1
	농림어업	919	26.7	40	10.2	-	23.1
	보건	2,240	38.6	20.3	15.9	20.2	5
	예술·인문학	13,939	48.5	7.8	14.2	8	21.5
	사회과학	6,323	59.3	14	5.7	5.4	15.6
	경영·법	3,418	63.7	2.3	9.9	7.5	16.6
	교육	4,177	90.6	3	2	-	4.4
	복지	600	83.7	-	16.3	-	-
	서비스	345	100	-	-	-	-

※ 1) 표의 수치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2) 갑국의 박사 1명당 취득한 박사학위 전공은 1개임
3) 갑국 박사의 박사학위 취득 전공은 제시된 전공 외에 다른 전공은 없음

- ① 갑국 박사 중 ‘일본’에서 ‘예술·인문학’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한 박사의 수는 ‘일본’에서 ‘사회과학’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한 박사의 수보다 많다.
- ② 갑국 박사 중 ‘중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박사수 중에서 ‘경영·법’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한 박사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이상이다.
- ③ 갑국 박사 중 ‘공학’ 전공 박사수와 ‘예술·인문학’ 전공 박사수의 합은 갑국 전체 박사수의 50% 이상이다.
- ④ 갑국 박사 중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박사의 수는 남성이 여성의 3배 이상이다.
- ⑤ 갑국 박사 중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박사의 수는 4,000명 이상이다.

9. 다음 <표>는 2024년과 2025년 나노산업의 기업규모별 사업체 수 및 매출액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2024년과 2025년 나노산업의 기업규모별 사업체 수 및 매출액 현황
(단위: 개, 십억원)

구분		2024년		2025년	
		사업체 수	매출액	사업체 수	매출액
나노 소재	대기업	7	2,964	8	2,061
	중견기업	29	12,282	41	10,565
	중소기업	328	2,213	332	2,373
	소계	364	17,459	381	14,999
나노 전자	대기업	11	43,099	9	39,883
	중견기업	25	97,951	19	84,198
	중소기업	120	1,458	139	1,476
	소계	156	142,508	167	125,557
나노 바이오	대기업	1	139	1	141
	중견기업	8	1,108	7	990
	중소기업	65	509	69	768
	소계	74	1,756	77	1,899
나노 장비	대기업	3	455	4	475
	중견기업	28	4,238	28	3,326
	중소기업	281	1,772	261	1,691
	소계	312	6,465	293	5,492
합계		906	168,188	918	147,947

※ 나노산업의 산업유형은 나노소재, 나노전자, 나노바이오, 나노장비로만 구성됨

- < 보 기 >
- ㄱ. 2024년 나노산업 산업유형 중 사업체 수 1개당 매출액이 가장 큰 산업유형은 2025년 전년 대비 사업체 수 개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 ㄴ. 2024년과 2025년 각 나노산업 산업유형에서 ‘중견기업’의 매출액 비중은 해당 산업유형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이다.
- ㄷ. 2025년 나노산업 산업유형 중 전년 대비 해당 산업유형의 전체 사업체 수 증감률이 가장 큰 산업유형은 ‘나노전자’이다.
- ㄹ. 2026년 나노산업 합계 매출액이 2025년 나노산업 합계 매출액의 전년 대비 감소율만큼 감소하면, 2026년 나노산업 합계 매출액은 13조원 미만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10. 다음 <표>는 A시의 급경사지(갑, 을, 병, 정, 무) 재해위험도 평가 점수에 대한 자료이다. <표>와 <정보>를 근거로 <보기>의 설명 중 반드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A시의 급경사지(갑, 을, 병, 정, 무) 재해위험도 평가 점수
(단위: 점)

구분	갑	을	병	정	무
붕괴위험성	()	()	()	49	()
지형	18	()	()	()	21
지반	12	9	()	()	11
시설	()	()	6	10	7
강우	()	8	3	6	4
사회적 영향력	24	19	15	()	()
인명 피해 가능성	()	7	9	13	9
산업 피해 가능성	6	8	()	7	()
환경 피해 가능성	()	4	3	5	4

< 정 보 >

○ A시의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항목은 70점 배점의 ‘붕괴 위험성’과 30점 배점의 ‘사회적 영향력’으로 구분된다.

○ ‘붕괴위험성’ 항목은 네 가지 세부 항목으로 구분되는데, 세부 항목 ‘지형’, ‘지반’, ‘시설’, ‘강우’의 배점은 각각 30점, 20점, 10점, 10점이다.

○ ‘사회적 영향력’ 항목은 세 가지 세부 항목으로 구분되는데, 세부 항목 ‘인명 피해 가능성’, ‘산업 피해 가능성’, ‘환경 피해 가능성’의 배점은 각각 15점, 10점, 5점이다.

○ 각 세부 항목의 점수는 0점부터 해당 세부 항목의 배점까지 주어질 수 있다.

○ 급경사지별로 ‘붕괴위험성’과 ‘사회적 영향력’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였을 때, 해당 급경사지의 총 평가 점수에 따라 ‘매우 위험(81점 이상)’, ‘위험(61점~80점)’, ‘보통(41점~60점)’, ‘안전(40점 이하)’으로 해당 급경사지의 재해위험도를 분류한다.

< 보 기 >

ㄱ. 갑의 재해위험도는 ‘위험’이다.

ㄴ. 병이 재해위험도 평가 점수를 최대한으로 받았을 때의 재해 위험도는 정의 재해위험도와 같다.

ㄷ. 을이 받은 세부 항목 ‘산업 피해 가능성’ 점수가 갑~무 중 가장 높은 점수라면 무의 재해위험도는 ‘위험’이다.

ㄹ. A시의 급경사지 중 재해위험도가 ‘매우 위험’인 급경사지는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다음 <표>는 A국 연도별 고위공무원 및 여성 고위공무원 수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A국 연도별 고위공무원 및 여성 고위공무원 수
(단위: 명)

구분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고위공무원 수	1,503	1,514	1,539	1,544	1,600	1,565	1,558	1,554
여성 고위공무원 수	98	102	122	132	160	174	183	201

※ 전체 고위공무원=여성 고위공무원+남성 고위공무원

< 보 기 >

ㄱ. 2018~2024년 동안 A국 전체 고위공무원 수 대비 여성 고위 공무원 수 비율은 매년 증가하였다.

ㄴ. 2018~2024년 동안 A국 여성 고위공무원 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9년이 가장 높다.

ㄷ. 2021년 A국 남성 고위공무원 수는 2017년 대비 3% 이상 증가하였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12. 다음 <표>는 2018~2024년 한 번 이상 참여한 취미활동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2018~2024년 한 번 이상 참여한 취미활동 설문조사 결과
(단위: %)

구분	쇼핑	인터넷 검색	음주	미용	게임	등산	독서	노래 연습
2018년	85.5	70.4	59.1	48.3	38	30.9	24	31.3
2019년	82.3	71.2	58.1	46.9	32.8	28.7	21.8	28.1
2020년	85.8	63.5	54.2	49.1	34.8	29.7	23.8	28.4
2021년	81.9	60.7	45.2	44.7	29.6	23.5	19.7	11.4
2022년	73.9	47.9	42.8	43.4	25.8	24.9	17.6	16.9
2023년	75.4	49.4	44.8	42.1	25.7	23.4	17.7	19.9
2024년	76.9	49.7	46.8	37.4	25.3	23.7	20	18.6

※ 1) 설문조사는 매년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함
2) 응답자는 한 번 이상 참여한 취미활동에 대해 복수 응답 가능함

< 보 기 >

ㄱ. 2024년 ‘독서’에 한 번 이상 참여하였다고 응답한 사람은 ‘노래연습’에 한 번 이상 참여하였다고 응답한 사람보다 140명 더 많다.

ㄴ. 2021년 ‘게임’에 한 번 이상 참여하였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하였다.

ㄷ. 2024년 ‘음주’에 한 번 이상 참여하였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년 대비 4% 이상 증가하였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3. 다음 <보고서>는 2024년 자전거 이용 현황 및 자전거 교통사고에 대한 자료이다. <보고서>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자료는?

< 보고서 >

최근 자전거는 근거리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이자 레저수단으로 인식되어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2024년 자전거 이용 목적 설문조사 결과, 자전거 이용 목적 중 1위는 ‘근거리 이동’이었고 그 다음으로 ‘건강, 체력증진’, ‘취미활동’이 뒤를 이었다.

이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다. 2024년 전국 자전거도로(2만 7,755km) 현황을 보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2만 661km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런데 2024년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부상자수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자전거 이용자들의 교통안전 의식 제고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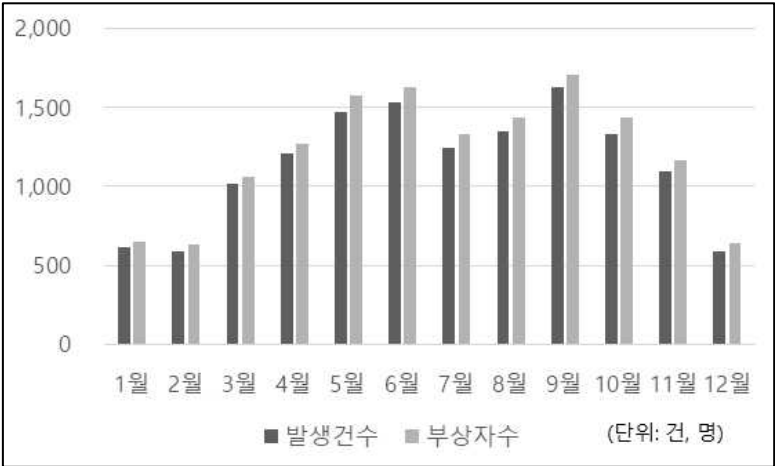
특히 2024년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2024년 자전거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의 70% 이상을 차지하였고, 같은 해 자전거 교통사고 부상자의 경우에도 60대 이상이 전체 부상자의 3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령층 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보호구 착용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4년 월별 자전거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부상자수가 많은 1위~3위 달은 모두 봄(3월~5월) 또는 가을(9월~11월)에 속해, 야외 활동이 많은 봄 가을에 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① 2024년 연령별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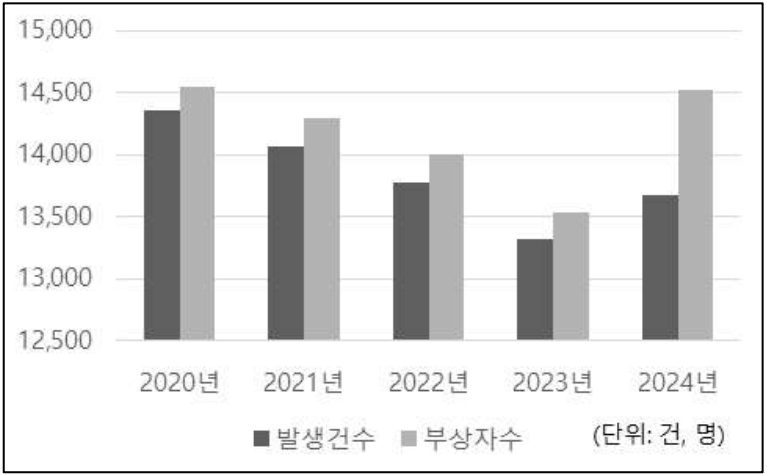
구분	발생건수(건)	사망자수(명)	부상자수(명)
10대 이하	3,593	7	3,907
20~30대	2,165	10	2,340
40~50대	3,083	29	3,322
60대 이상	4,832	127	4,955
총계	13,673	173	14,524

② 2024년 월별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



※ 봄(3월~5월), 여름(6월~8월), 가을(9월~11월), 겨울(12월~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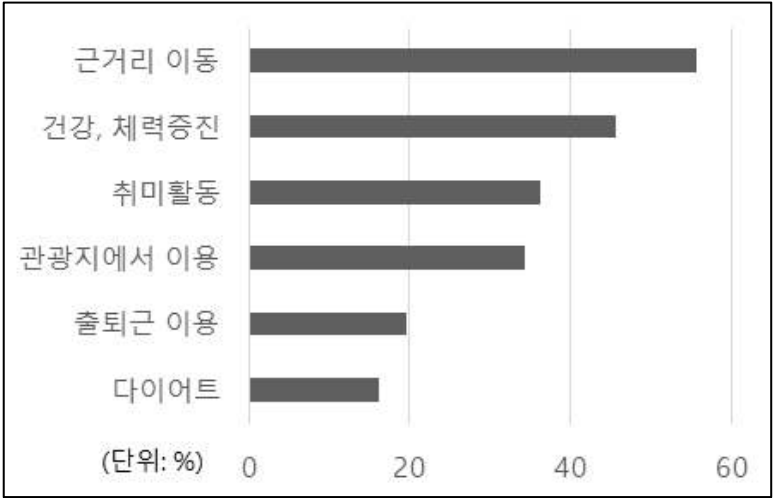
③ 최근 5년간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



④ 2024년 전국 자전거도로 현황

구분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총계
길이 (km)	3,735	20,661	1,107	2,252	27,755

⑤ 2024년 자전거 이용 목적 설문조사 결과



14. 다음 <표>는 2022~2026년 A부처의 세출예산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2022~2026년 A부처의 세출예산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총예산		4,537	4,697	4,482	4,698	5,490
일반회계	주요사업비	3,298	()	3,208	3,458	()
	보조금	1,368	1,499	1,509	1,344	1,290
	R&D예산	1,111	1,095	885	1,318	2,264
	정보화예산	751	762	733	720	580
	ODA예산	68	73	81	76	64
	기본경비	()	1,238	()	1,226	1,278
특별회계		9	30	19	14	14

※ 1) 총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만 구성되며, 일반회계는 주요사업비와 기본경비로만 구성됨
 2) 주요사업비는 보조금, R&D예산, 정보화예산, ODA예산으로만 구성됨

< 보 기 >

- ㄱ. 2023~2026년 중 전년 대비 보조금이 증가한 모든 연도에는 총예산도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 ㄴ. 2022~2026년 동안 총예산 대비 기본경비의 비중은 매년 감소한다.
- ㄷ. 2023~2026년 중 전년 대비 R&D예산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연도에는 총예산 증가율도 가장 높다.
- ㄹ. 2022~2026년 동안 주요사업비 중 정보화예산의 비중은 매년 20% 이상이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ㄷ, ㄹ

15. 다음 <표>는 A~E 공장의 생산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표>와 <정보>를 근거로 판단할 때, 정량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공장은?

<표> A~E 공장의 생산 현황
(단위: 개)

구분	발주량	투입량	생산품	불량품
A	1,500	1,500	1,200	0
B	1,100	1,100	1,100	220
C	1,600	1,500	1,500	300
D	1,500	1,200	1,000	100
E	2,000	2,000	1,800	0

< 정 보 >

- 생산품은 양품과 불량품으로 구성된다.
- 계획달성률은 발주량 대비 양품의 비율이다.
- 수율은 투입량 대비 양품의 비율이다.
- 정량평가 점수는 계획달성률과 수율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 ① A
- ② B
- ③ C
- ④ D
- ⑤ E

16. 다음 <표>는 A회사 지원자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표>와 <정보>를 근거로 판단할 때, 갑, 을, 병, 정, 무 지원자 중 A회사에 합격할 지원자는?

<표> A회사 지원자 현황

이름	전공	영어성적	관련 자격증 수	자기소개서 점수
갑	경제	○○시험 890점	0개	35
을	정치외교	△△시험 85점	2개	40
병	경영	○○시험 980점	4개	40
정	사회	○○시험 960점	3개	45
무	행정	◇◇시험 450점	1개	35

※ 지원자는 갑, 을, 병, 정, 무 뿐임

< 정 보 >

- 총점이 가장 높은 1명이 A회사에 합격한다.
- 총점=

(전공전환점수)×0.2 + (영어환산점수)×0.3 + (관련 자격증 점수) ×0.1 + (자기소개서 점수)×0.4
- 전공전환점수 계산식

전공	전공전환점수
경상계열(경영, 경제)	50
사회계열(사회, 행정, 정치외교)	25
- 영어환산점수 계산식

영어환산점수	○○시험	△△시험	◇◇시험
50	950점 이상	90점 이상	500점 이상
40	900점 이상	80점 이상	400점 이상
30	820점 이상	70점 이상	300점 이상
20	820점 미만	70점 미만	300점 미만
- 관련 자격증 점수 계산식

관련 자격증 수	관련 자격증 점수
0개	0
1~2개	20
3개	30
4개	40
5개 이상	50

- ① 갑
- ② 을
- ③ 병
- ④ 정
- ⑤ 무

17. 다음 <표>는 2022년과 2023년 A노동위원회 사건 유형별 처리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2022년과 2023년 A노동위원회 사건 유형별 처리 현황

(단위: 건)

구분	2022년 처리 사건수	2023년 처리 사건수
전체 처리 사건수	15,958	18,569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13,141	15,816
노동쟁의 조정	1,150	1,056
부당노동행위	787	823
복수노조관련	700	696
차별 시정	180	178

※ A노동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 유형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복수노조관련, 차별 시정 유형으로만 구성됨

< 보 기 >

- ㄱ. 2023년 A노동위원회 전체 처리 사건수 중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 유형 처리 사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80% 이상이다.
- ㄴ. 2022년 대비 2023년 A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 유형 처리 사건수의 감소폭은 같은 기간 A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유형 처리 사건수의 증가폭보다 크다.
- ㄷ. A노동위원회의 전체 처리 사건수 중 부당노동행위 유형 처리 사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과 2023년 모두 4% 이하이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18. 다음 <표>는 가구원수별 가구의 소득과 지출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가구원수별 가구의 소득과 지출				
가구원수별 가구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구분				
가계지출(만원)	227	346	521	642
소비지출(만원)	()	()	()	()
비소비지출(만원)	58	89	146	169
가처분소득(만원)	227	462	710	845
평균소비성향(%)	74.4	55.6	52.8	56.0

- ※ 1) 표의 수치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 2) 5인 이상 가구는 존재 하지 않음
- 3) (1, 2, 3, 4인)가구 가처분소득
=(1, 2, 3, 4인)가구 경상소득-(1, 2, 3, 4인)가구 비소비지출
- 4) $\text{평균소비성향}(\%) = \frac{\text{소비지출}}{\text{가처분소득}} \times 100$
- 5) 1인당 (경상, 가처분)소득 = $\frac{(\text{경상, 가처분})\text{소득}}{\text{가구원수}}$
- 1인당 소비지출 = $\frac{\text{소비지출}}{\text{가구원수}}$

< 보 기 >

- ㄱ. 1인당 소비지출이 가장 적은 가구는 4인가구이다.
- ㄴ. 4인가구 경상소득은 1인가구 경상소득의 4배 이상이다.
- ㄷ. 1인당 경상소득은 1인가구부터 4인가구까지 모두 250만원 이상이다.
- ㄹ.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1인당 가처분소득은 증가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 다음 <표 1>, <표 2> 및 <표 3>은 A국의 2020~2024년 자동차 규모별, 차종별, 자동차등록용도별, 누적주행거리별 검사대수에 대한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근거로 답하시오. [문19.~문20.]

<표 1> A국의 2020~2024년 규모별 자동차 검사대수
(단위: 대)

연도 규모별	2020	2021	2022	2023	2024
경형 자동차	945	919	991	948	999
소형 자동차	2,432	2,479	2,526	2,596	2,598
중형 자동차	6,051	6,229	6,314	6,471	6,546
대형 자동차	2,744	2,968	3,057	3,279	3,479

※ 전체 자동차=경형 자동차+ 소형 자동차+ 중형 자동차+ 대형 자동차

<표 2> A국의 2020~2024년 차종별 자동차 검사대수
(단위: 대)

연도 차종별	2020	2021	2022	2023	2024
승용차	7,666	8,075	8,329	8,679	9,028
승합차	933	926	920	903	868
화물차	3,439	3,448	3,481	3,540	3,539
특수차	134	146	158	172	187

※ 전체 자동차=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표 3> A국의 2024년 자동차등록용도별, 누적주행거리별 자동차 검사대수
(단위: 대)

누적주행 거리별 자동차 등록용도별	5만km 미만	5만~ 10만km 미만	10만~ 15만km 미만	15만~ 20만km 미만	20만~ 25만km 미만	25만km 이상
비사업용	2,026	3,326	2,733	1,793	997	1,051
사업용	415	395	194	112	81	499

※ 전체 자동차=비사업용+ 사업용

19. 다음 중 <표 1>, <표 2> 및 <표 3>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A국의 2021년 전년 대비 대형 자동차 검사대수 증가율은 같은 기간 중형 자동차 검사대수 증가율의 3배 이상이다.
- ② A국의 전체 자동차 검사대수 중 승용차 검사대수 비중은 매년 70% 이상을 차지한다.
- ③ A국의 2022년 전년 대비 특수차 검사대수 증가율은 2024년 전년 대비 특수차 검사대수 증가율보다 높다.
- ④ A국의 2020~2024년 동안 중형 자동차 검사대수는 매년 대형 자동차 검사대수의 2배 미만이다.
- ⑤ A국의 2020년 대비 2024년 특수차 검사대수 증가율은 같은 기간 승용차 검사대수 증가율보다 높다.

20. 다음 <보기> 중 <표 1>, <표 2> 및 <표 3>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A국의 2021~2024년 경형 자동차 검사대수의 전년 대비 증감률

연도	증감률 (%)
2021년	-2.8
2022년	7.8
2023년	-4.3
2024년	5.4

※ 제시된 증감률은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ㄴ. A국의 2020년 차종별 자동차 검사대수 구성비

차종	구성비 (%)
승용차	61.0
승합차	13.9
화물차	23.0
특수차	2.1

※ 제시된 구성비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ㄷ. A국의 2024년 자동차등록용도별, 누적주행거리별 자동차 검사대수

누적주행거리	비사업용	사업용
5만km 미만	2,026	415
5만~10만km 미만	2,733	395
10만~15만km 미만	3,327	194
15만~20만km 미만	1,793	112
20만~25만km 미만	997	81
25만km 이상	1,051	499

ㄹ. A국의 연도별 전체 자동차 검사대수

연도	전체 검사대수
2020년	12,172
2021년	12,595
2022년	12,888
2023년	13,294
2024년	13,622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